문화광장

회고전의 시즌

이 나 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비엔날레에 대형전시와 국제전 개최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쏟는 동안, 다른 지역 미술관들도 분주했다. 올해 초 그간 미뤄졌거나 오래간 준비한 슈퍼스타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 소식이 잦았다. 입장료가 무료라는 파격 서비스가 더해져 미술애호가들이 전시를 챙겨보느라 전국을 오가는 바쁜 시간이었다. 이 '전국'에 제주비엔날레가 동선에 포함되기도 해서, 서울-제주-부산을 오가는 연초 일정을 짜느라 분주하다는 행복한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시를 보러 비행기를 타고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의 애정어린 질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듣기로 했다. 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제주까지 찾아온 이상 모든 의견은 진심 어린 관심에 기인한 것이라 여길 수 있었다.

해외작가 회고전의 신호탄은 서울시립미술관의 '키키 스미스-자유낙하'였다. 40여 년간의 작업을 돌아보는 스미스의 한국 첫 개인전은 지난 3월 12일을 마지막으로 3개월의 전시를 마쳤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무라카미 타카시:무라카미 좀비'전을 지난 1월 26일 오픈해 3월 12일까지 가졌다. 한 달 반 남짓의 짧은 전시 기간 탓인지, 전시장은 연일 오픈런이었다. 이 대형 회고전에선 작가의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살펴볼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 개의 유명한 회고전이 같은 날 끝난 바람에 이제 모든 관심은 리움미술관의 '마우리치오 카텔란: WE'로 쏠린다. 지난 1월 31일 오픈해서, 7월 16일까지 상대적으로 넉넉한 전시기간이다. 리움이 내세운 무료혜택 덕인지, 작가의 유명세 덕인지, SNS 입소문이 효과를 거둔 것인지, 예약은 계속 매진이다. 예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입장을 위한 줄이 길다. 역시 작가의 초기작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소개하는 회고전이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비엔날레를 마치고 지난 3월 10일 제주작가들의 회고전을 오픈했다. '제주작가 마씀'이라는 시리즈로, 제주미술계에 공헌을 해 온 제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장르별로 들여다보는 전시다. 작년에 이미 동양화가 강동언과 도예가 허민자의 회고전을 개최했고, 올해는 조각가 임춘배와 서양화가 박성진을 살핀다. 전시는 4월 23일까지 계속된다. 회고전은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일생에 거쳐 살피는 전시인만큼 자주 열리기 어렵다. 한번 놓치면 다시 기회를 찾기가 어렵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지역작가의 회고전이 타카시나 카텔란처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작가들처럼 대중적 관심을 얻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명의 작가가 평생을 작업에 헌신한 궤적을 살피는 방식은 동일하다. 익히 알려진 작가의 유명한 작품들을 좇는 것도 좋지만, 제주라는 한 지역에서 지역성과 역사성을 교차해 살피며 한 작가의 작업세계를 따라가 보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이다.

사설

제주들불축제 패러다임 바꿔야

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가 '들불' 없는 축제로 막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새별오름 일원에서 제25회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축제의 백미인 오름 불놓기와 달집 태우기 행사는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놓기가 취소되자 관람객이 급감했다. 4년 만에 정상 개최해 축제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기반을 마련하려던 제주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축제 개최시기 변경도 녹록지 않다. 당초 축제는 음력 1월15일 정월대보름에 맞춰 열렸다. 기상악화로 파행을 거듭하자 2013년 축제부터 경칩이 속한 주말에 개최됐다. 그런데 축제시기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와 겹쳐 불놓기가 여의치 않다.

차제에 들불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축구장 42개 면적에 달하는 오름을 태우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주범으로 몰리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들불축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오름 불놓기 폐지는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오름 불놓기를 대체할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불을 주제로 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불꽃과 음악, 레이저 연출이 결합된 아시아 최고의 불꽃쇼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를 보기 위해 여의도를 찾는다. 제주시는 앞으로 축제기간과 축제 방식, 축제 콘텐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축제안을 기획해야 한다.

제주경제 종합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올해 도내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제주지역 경제 전반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 마련한 경제산업정책회의에서 '제주경제 현황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제주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부문별 진단에 이어 경제 전망을 공유했다. 올해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국내경기 둔화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전반에 걸쳐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주경제의 불확실성과 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산업정책회의에는 도지사를 비롯 상공회의소 회장과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제주연구원장, 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전문가들과 실국장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진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등 고민을 시작한 셈이다. 향후 ▷농축산업 ▷건설(부동산) ▷관광 ▷고용물가 ▷신성장산업 ▷수산업 ▷기타 소비·금융·물류·서비스 분야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 주요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변화와 정량·정성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경제의 회복력을 주기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주연구원의 제언을 우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진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처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도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머리를 맞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3월엔 놓치지 마세요

전 미 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납세자에게 일정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약 6.4%, 3월은 약 5.3%, 6월은 약 3.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약 1.8%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이번 달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약 5.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제도이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원래의 세액으로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돼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항상 따라다니기에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연납신청을 통한 납부방법은 세금을 줄여줄 것이며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께서 세금 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방법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교사들 챗GPT 교육 참여 '열기'

수업 활용 시 지원 검토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열풍 속에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처음 개설한 관련 연수에 높은 관심.

13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미래교육에 대비해 챗GPT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챗GPT와 교육'을 주제로 오는 18~19일 연수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하루 만에 60명의 모집 인원이 마감됐고 4월에도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

융합과학연구원 측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수를 마련했다"며 "향후 수업에서 챗GPT 활용 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첨언. 진선희기자

제주들불축제서 기부제 홍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수납 은행인 NH농협은행과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10~11일 관광객이 많이 찾은 제주들불축제 행사장인 새별오름에서 기부제를 홍보.

축제장 내 정책홍보관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리플릿과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삼다수를 나눠주며 기부방법과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제주에 기부한 이대호 전 야구선수, 신유빈 탁구선수, 문희경 배우의 홍보영상도 행사장 전광판에 송출.

제주농협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올 한해 제도 알리기에 주력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공감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 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종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